모임 14: 신명기 31-34장   
Dr. Cynthia Parker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션인 14번째 세션, 신명기 31-34장입니다.

**소개**

자,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책의 구조를 꿰뚫고 있던 두 개의 느슨한 실을 묶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이 실제로 어떻게 신명기 책의 북엔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명기를 통해 큰 주요 주제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강의에서 모두 논의한 5-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31장에서 3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린 이 북엔드는 Pottery Barn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경우 해당 카탈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전이 어떻게 책의 핵심에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신명기에는 법전을 가리키는 초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에서 충만한 인간 존재를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리허설하고 사람들을 배치하여 법전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치뿐만 아니라 지리적 배치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몇 장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세의 생애에 걸친 마지막 행동에 대해 논의해 왔으므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며 그것은 34장에서 끝납니다.

**최종 북엔드**

따라서 우리가 시작하고 이 외부 프레임으로 들어갈 때 나는 이것을 신명기 책의 마지막 북엔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 1-4장 또는 1-3장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반복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신명기 1장이 시작된 것과 정확히 같은 역사적 개관으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장에 대해 어떻게 매우 특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중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가고, 율법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31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것은 부정적인 메시지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내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우리를 모세의 노래 32장으로 인도합니다. 차기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32장의 모세의 노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 초막절 율법 암송, 전사로서의 하나님, 옥과 시혼**

이제 3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가 가서 이 말로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로 십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건너가시리니 그가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실 것이요 너희는 그들을 차지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와 함께 앞서 건너가리라 '"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처음으로 신명기 1장과 3장 모두에서 언급된 옥 왕과 시혼 왕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붙이시리니 너는 모든 대로 그들에게 행할 지니라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들을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백성과 함께 들어가리니 그 땅을 그들에게 주라 여호와께서 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였다"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잠시 멈추고 이 율법이 무엇인가? 12장에서 26장인가요? 그것은 그것의 일부입니까, 그것의 일부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어의 진정한 핵심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명기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신명기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야 할 것은 모세가 이 구두 가르침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율법 낭독**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매 칠년 연말 정년의 빚 탕감 곧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아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여 들리게 하고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을 모으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듣고 배우며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거하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알지 못하는 자손이 듣고 배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신명기의 강조점 중 하나가 6장 안과 11장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갈 때 길을 걸을 때 일할 때 밥 먹을 때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활동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법의 부모에서 자녀로의 전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 말을 기록하여 제사장들의 손에 넘기는 것을 봅니다.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우리 모두가 한 사회 전체로 함께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우리 반에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말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느 달에 있고 어떤 휴일을 축하하는지 기억합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큰 소리로 읽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단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법률의 공개 낭독에 관한 기타 텍스트**

자, 역사적 서사를 통해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여호수아서의 끝 부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율법에 동의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시기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씀이나 율법책을 읽고, 그들이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페르시아 땅인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빌론 땅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들은 오고 있고 유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율법책을 그들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모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7년마다, 빚이 탕감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행한 어떤 것이나 전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의 세부 사항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유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 섹션이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몇 구절을 더 건너뛸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니라

**모세의 노래 소개**

19절에서, 아니, 사실 17절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배교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리니 그들이 멸망할 것이요 많은 재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 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므로 그 모든 악을 행하므로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가리우리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형통하게 된 후에 그들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의 최전선에 두기 위해서는 이 노래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더 이상 광야의 중심과 죽음의 문턱에 있지 않고 삶이 그들에게 조금 더 쉬워질 때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삶이 더 쉬워집니다. 거기에 도착. 그래서 이 노래는 그들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끝부분에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기를 마치매 모세가 언약궤 와 여호와의 언약을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 너희의 패역과 완악함이 계속될 것을 아노니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게로 모으라 내가 이 말을 그들의 귀에 말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라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악을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도를 떠나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내가 아나니 너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진노케 함이니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일로 진노하시리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중 또 다른 하나는 다소 비관적인 모세의 종말처럼 들립니다. 광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땅 가장자리로 데려온 이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이 계속할 것임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무언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 모세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3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책에 나오는 시에 사용된 일부 언어는 훨씬 더 고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주 초기에 가르쳐졌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유포된 아주 아주 오래된 시입니다. 이 시는 선지자들의 글 전체를 통해 여러 가지 다른 메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갖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노래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노래의 의미**

꽤 유명한 강의나 강연에 말을 걸어봅니다. 당신은 이 강연의 첫 단어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인식할 수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네 단어만으로 "I have a dream"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즉시 Martin Luther King Jr.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 조직의 일부입니다. 글쎄, 이것은 그 연설의 일부이며 매우 강력하고 매우 아름다운 연설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자신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들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녹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연설을 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연설을 외웠을 것입니다. 연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누군가가 저를 위한 인용문, 연설 중간 부분에 불과했다면 저는 그것을 즉시 마틴 루터 킹과 연관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명한 연설이기 때문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연설의 전체 맥락을 즉시 살펴보고 모든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설을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노래와 대조해 봅시다. 이것은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된 영화에서 나옵니다. "내일 해가 뜰거야." 영화 '애니'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훌륭한 문화적 맥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력하지 않은 노래 중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나 연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노래입니다. 하지만 노래 중간에서 몇 마디를 골라서 부르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태양이 내일 나오세요. 그 내일에 최저 금액을 걸으세요."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래서 배우기 쉬운 노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멜로디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다가 여기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설교나 말씀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억하기 매우 쉬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세 가 백성에게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 신명기 32:1-2**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게 하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듣게 하라”로 시작합니다. 증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목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절에 있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과 푸른 풀 위의 물방울과 채소 위의 단비 같게 하소서."

그래서 풀밭에 맺힌 이슬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은유를 사용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이 나뭇가지, 풀잎, 또는 식물의 가지와 잎에 모이면서 떨어져서 부드럽게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 말이 이슬 같이 네게 떨어지리라 당신 위에 와서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당신 위에 모여서 흙 속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신명기 32:3-8 –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의 행사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의와 정직 이시라 . 그들이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 흠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라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신 것이 아니냐 네가 너를 세웠느니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물으라 그가 네게 알리리라 그가 네게 알리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자들을 분별하실 때에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명기에서 매우 흔했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의 맨 끝과 오경의 맨 끝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부 차용은 같은 종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갈 때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

**신명기 32:9-10 및 창세기 1, 2장**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그 기업의 분깃이로다 그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울부짖는 황무지"가 있는데, 나는 당신의 번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desert land"와 병행하지만 실제로 tohu 에 사용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깊고 어두운 혼돈인 vabohu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시작하시고 영이 깊은 곳에서 퍼덕이실 때입니다 . 그 깊은 곳이 토후 vabohu .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사막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 있습니다. 새끼 위에 맴도는 둥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hovering"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플러터 유형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걱정 하며 조심스럽게 펄럭이는 새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 흥미롭게도 이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 심해 위를 맴돌거나 펄럭이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11-15 땅의 소산**

그래서 "그가 날개를 펴서 그것들을 붙들어 그 날개에 얹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으며 그가 그를 땅의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며 땅의 소산을 먹었도다 밭을 가니 그가 그에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니 곧 소의 엉긴 젖과 양 떼의 젖과 어린 양과 숫양의 기름과 바산의 품종과 염소와 가장 좋은 밀과 피 포도, 당신은 와인을 마셨다."

**신명기 32L15-21 그들의 하나님을 잊음**

이것은 그 땅에서 생산된 실제 생산물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는 매우 시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살찌고 발로 찼더라." 여수 룬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여수 룬이 살찌고 발로 차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멸시하니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를 시기하게 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최근에 새로운 신이 되었나니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다시, 이것은 신명기의 많은 가르침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당신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것이 당신과 모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잊을 것이고, 실제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실제로 당신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스룬은 기름진 밀 또는 가장 좋은 밀과 기름진 또는 가장 좋은 포도 피가 있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어 그로 인해 자신이 살찌고 만족하고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너를 낳은 반석을 무시하고 너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도다." 나는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병행하기에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개념은 당신이 신을 잊었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꽤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족보를 많이 얻습니다. 족보를 읽어보면 그들은 이러저러하게 낳고 누구에게서 이렇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자를 낳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러나 평행 구절은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출산 동사는 정말, 단지 여성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방식으로 아빠와 엄마로서의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성 정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을 낳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2:19ff – 망각은 저주로 이어지고 소돔 주제는 재검토됩니다**

노래의 다음 몇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의 노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시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워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그들은 패역한 세대임이로다 아들들아” 그에게는 신실치 아니하시고 신이 아닌 것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우상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이로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약간의 도전을 원하신다면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고 로마서 10장과 여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노래에는 모세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일부 저주와 선택의 결과에 대한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멸시하고 다른 우상을 선택하고 떠나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전체 목록이 있고 저는 30절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케 하였으리요 그들의 반석은 우리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대적들도 이렇게 판단하였나이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요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요 쓴송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약이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은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0편과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오신 최고의 포도나무로 산지에 심으시고 그들이 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들의 열매는 신 과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만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신원을 밝히시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의 무력함과 매인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한 반석이 아니냐 그들이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으며 그들의 전제의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의 숨는 곳이 되게 하라 이제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나니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고치는 것도 나라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참으로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잡고 내 대적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화살을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을 열국이여 그의 백성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장모의 원수 곧 장모의 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가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리니 그의 땅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시니 모세가 내려와 이 말씀을 하고 이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 노래에서 우리는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지 보았고 노래에는 혼돈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있으므로 토후 에서 와보후 , 혼돈의 깊은 어둠, 혼돈에서 풍요의 땅으로. 그리고 결국 풍족한 땅에 이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주의, 마음이 강퍅해지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땅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단지 들어가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성공적으로 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에서도 우리는 이주가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 모세의 이스라엘 축복**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끝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정말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한 신명기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축복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먼저 백성 전체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지파를 거치며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사실 약간 부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 어떤 형제들은 가장 이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축복은 매우 긍정적이며 거의 모든 축복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끝날 무렵, 우리는 마지막에 아셀이 축복받은 마지막 지파라는 생각을 얻습니다. 26절에 모세의 노래를 빌려 “ 여스룬 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 "그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다니시며 그의 위엄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시요 그 밑에는 영원하신 팔이 계시도다 또 원수를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멸하라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 하도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도다 그의 하늘도 이슬을 내림이여 너와 같은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도다 방패이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로다 네 도움과 네 위엄의 칼 이니라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엎드러지고 네가 산당을 밟으리라

자, 이제 여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1장과 같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우리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라 하면서도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자기 땅 가장자리에 이르렀고, 율법도 받았고, 모세의 노래도 받았고, 모세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용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의 시작과 같은 종류의 맥락에 있습니다. 상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들어가 적군과 맞서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애굽에서 바로를 대적하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부르신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곳,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 이미 입증된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정적이지 않고 실제로 능동적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 모세의 죽음**

글쎄요, 신명기 34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론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집자의 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모세는 3인칭으로 언급되며 모세의 활동으로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끝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노래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단까지 길르앗 온 땅을 보이시니라. ” 그리고 지명 목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 다른지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지도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지도들은 성경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별은 대략 모압 평원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 대략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개의 다른 산봉우리가 있고 사람들은 요르단을 방문할 때 어느 산봉우리로 가야 할지 논쟁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여기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보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지리학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단까지 길르앗 땅을 보이리라"에서 단은 먼 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단 성은 물론 모세 시대에는 단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라이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단 지파인 단 지파가 올라가서 라이스 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단 성이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사기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기록될 때쯤 편집자는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 모세에게 길르앗에서부터 단까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납달리"는 여호수아서가 나올 때까지 지파의 유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의 유산은 거기 북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곧 서해와 네겝에 이르는 해변까지의 산간 지대인 유다 온 땅"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네게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숫자 8 또는 무한대 기호입니다.

"여리고 골짜기의 평야, 소알까지의 종려나무의 성읍." 소알은 아마도 사해 남쪽 끝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알아차린 것은 실제로 당신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 것은 토지의 패턴 또는 이러한 지리적 장소의 목록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쪽 길르앗에서 시작하여 이동하는 것이 느보 산 옆 지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 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느보산에 서 있을 때, 공기가 매우, 매우, 매우 맑다면, 이 땅의 상당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산꼭대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좌우와 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내가 네게 준 땅이니라

이제 모세 오경의 끝에서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 주며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전체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어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아니 오늘날까지 사람이 그의 매장지를 알고 있으나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활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평생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울 더니 모세를 위하여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그쳤더라 그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 에게 안수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매우 의미 있고 무게 있는 칭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세 곧 모세가 애굽 땅에서 행한 모든 큰 두려움을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보는도다."

**요약/결론**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명기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교훈, 또는 신명기에서 본 주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 반복된 것, 신명기가 깊숙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머리. 신명기는 내적 사적 영역에서 외적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장소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물리적인 땅이 어떻게 사람들을 원자화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식별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한 장소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축제를 중심으로 삼아 다양한 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일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 년에 여러 번씩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과 리더십이 어떻게 권위를 고립시키지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들을 사회에서 가장 선출되고 선택되고 부유한 부분으로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직관에 어긋나고 불편한 종류의 관대함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관대함이 실제로 공동체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 내에서 우리는 방종한 행동을 규제하고 억제하라는 요구를 보았습니다. 공동체에 이로운 것을 중용하고 추구하는 것이 실은 국민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육지에 사는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고 주변의 물리적 자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물, 동물, 땅, 토양 등 환경에 대한 그들의 행동; 그 행동은 바깥쪽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돌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장소를 건강하고 활기찬 장소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면 그 활기가 다시 돌아와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고무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연구를 마치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흉내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호렙산, 시내산을 돌았으니 일어나서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이 산을 돌았노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연구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살펴보았고, 신명기의 더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으로써.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회기, 14회기 -- 신명기 31-34장입니다.